

나하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전적지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구 해군사령부호

항구평화기념 잊을 수 없는 20세기의 상흔들!

문의

구 해군사령부호사업소
 〒901-0241 오키나와현 도미시로시 아자 도미시로236번지
 TEL (098) 850-4055 FAX (098) 850-9342
 URL <http://kaigungou.ocvb.or.jp>

일반 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OCVB)
 〒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오로쿠 1831번지 1(오키나와 산업지원센터 2층)
 TEL (098) 859-6123 FAX (098) 859-6221
 오키나와 관광정보 시스템 URL <http://www.okinawastory.jp/>



■ 오키나와전으로 인한 전몰자수

전체 전몰자수 200,656명

일본측(188,136명)	미군측(12,520명)
---------------	--------------

- 타 도도부현(都道府県) 출신(군인 군속) **65,908명**
- 오키나와현 출신(군인 군속) **28,228명**
- 오키나와현 출신(전투 참가자) **56,861명**
- 일반 오키나와 현민(추계) **37,139명**
- 미군이 사용했던 포탄 (1945년4월1일~6월30일) **2,716,691발**
- 당시의 오키나와 현민 57만 4368명으로 나누면 1명에 대해 472발의 포탄을 사용한 것이 된다.
- 미군 제10포병사단의 포탄 사용수 (1945년4월1일~6월30일) **2,116,691발**
- 오키나와현 내 불발탄 처리 실적 **1,178,869발**
- 구 해군호 유골수습 작업 상황 **약 2,400명**

구 해군사령부호 액세스

구 해군사령부호

■ 참관료

■ 旧海軍司令部壕参観料

	大人	小人
個人	450円	230円
団体 (20人以上)	400円	200円

※大人(高校生以上) ※小人(小学生~中学生)
 ※어른(고등학생 이상)
 ※아동(초등학생 ~중학생)

■ 개관시간 (연중무휴)
 8:30~17:30 (7월~9월)
 8:30~17:00 (10월~6월)

■ 교통
 아사히바시(旭橋) (나하 버스터미널 앞)에서 55, 88, 98번 계통으로 우에바루단치 마에 (宇栄原団地前) 하차. 도보 5분 나하공항에서 택시로 약 20분

구 해군사령부호의 사령관이었던 오타 미노루 소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은 미군의 맹공을 받아 1945년 6월 13일 밤 권총 자결을 했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오타 소장이 해군 차관 앞으로 보낸 오키나와 현민의 헌신적인 작전 협력에 대해 호소한 것입니다.



오타 미노루 해군 소장

062016번 정보 1945년6월6일 20시16분

발표인 오키나와군지사령관
수보인 해군차관

아래의 진문이 해군차관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오키나와 현민의 실정에 관해서는 현지사로부터 보고되어야 하겠지만 현은 이미 동진한 힘이 없으며 32군(오키나와 수비군) 사령부 또한 동진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현지사에게 부탁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기에 대신하여 긴급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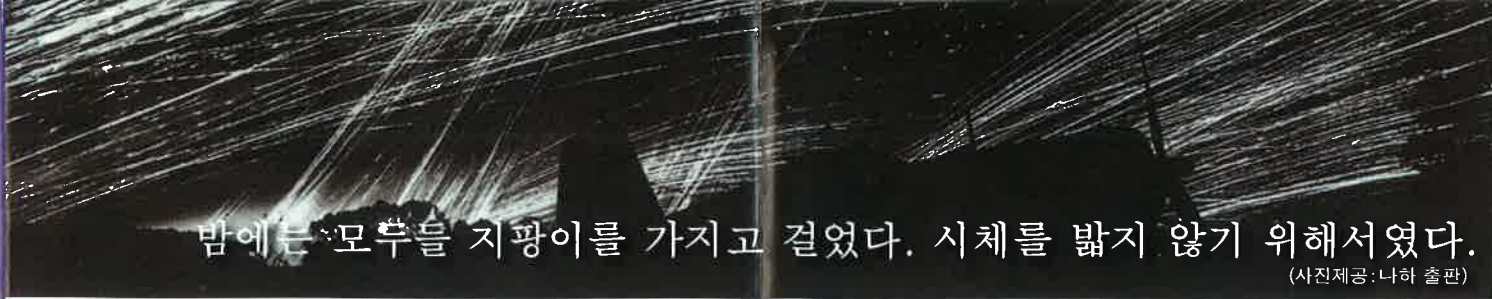
오키나와에 적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육해군 모두 방위를 위한 전투에 전력을 다하느라 정작 현민에 대해서는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한해 말씀드리자면 현민은 청년이나 장년 할 것 없이 모두 방위에 동원되었으며, 남은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만이 실재없이 이어지는 포폭격으로 집과 재산이 불타버려 간신히 남은 땀뭍 하나로 군의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작은 방공호에 피난하거나 포폭격 아래에서 헤매고 비바람에 노출되는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 왔습니다.

게다가 젊은 여성은 자발적으로 군에 몸을 던져 간호부, 취사부는 말할 것도 없이 포탄을 옮기거나 전방에 참가를 신청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 오면 노인이나 어린이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후방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다고 하여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각오하고 말을 굳에 맡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간호부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군의 이동 시에 위생병이 벌레 쫓아내며 의지할 곳 없는 중상자들을 도와 함께 헤매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 작전에 큰 번거로움이 있어 멀리 떨어진 주민자구를 지경되었을 때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은 밤중에 자체의 힘으로 빗속을 뚫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육해군이 오키나와에 온 이래로 현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군로 봉사하고 물자 절약을 강요당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한다는 임무를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결국 보답받지 못한 채 이 전투의 마지막을 맞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실정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조차도 모조리 타버려 먹을 식량도 가우 6월 한 달만 버틸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현민은 이와 같이 싸웠습니다. 현민에 대해서는 후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진문은 원문을 현대문으로 고친 것입니다)



밤에는 모루를 지팡이를 가지고 걸었다. 시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진제공: 나하 출판)

구 해군사령부호 JAPANESE NAVY UNDERGROUND HEADQUARTERS

1944년 일본해군 설계대(設計隊)에 의해 파어진 사령부호로 당시에는 450m였습니다. 이 장소가 선택된 이유는 해군의 오토루(小祿)비행장(현재의 나하 공항)에서 가까운 높은 언덕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군의 첩보사격에도 견디고 기구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령부호로서 전방이 좋고 전투에 돌입할 경우 육안으로도 적과 야군 전체를 광학각이 된다는 것과 동진에서도 장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4000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투 현상만 방지되어 있었지만 수차례에 걸쳐 유혈수송을 한 후(약 2,400명) 1970년에 300m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 지역에 지함부(地穴)라고 불리워지는 곳으로 류큐왕국시대 때 중국에서 오는 배나 이국인의 내항을 한시라도 막기 위해 수리성에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리던 장소였습니다. 호 주벽은 오키나와현이 운영하는「기이군과 공원(吉里郡公園)」으로 되어 있으며, 나라 사내와 도비구스쿠(徳見城) 시에 및 동중국해가 바라다보는 전방이 좋은 장소로 나하공항에서도 가장 가까운 전격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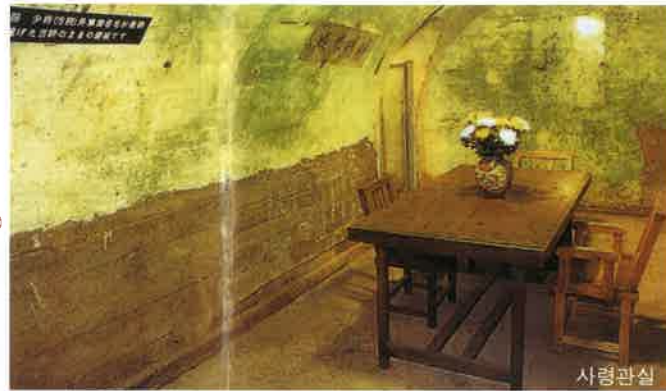
호 입구 계단

105년 30m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면 통로가 종횡으로 뻗어있는 호 안으로 이어집니다.



막료실(幕僚室)

사령관실, 작전실과 가까운 이 방은 막료가 작전할 때 사용했던 서류단과 관련 흔적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령관실

사령부호 내 약도 및 순로(順路) (→)



사령관실의 벽면에는「대군(친왕 폐하)의 깃발 아래 죽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양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 오타 사령관의 애창가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키나와전 주요사항 연표 (1941년-1945년)

1941년12월8일	진주만 공격
1941년12월10일	태평양전쟁 발발
1944년4월10일	해군 오키나와 방면 근거지대 편성
7월18일	도조(東條)내각 총사퇴
7월22일	고이즈(小磯), 오키나와(米内) 내각 성립
8월9일	제32군 사령관 경질
	우시지마 미쓰루 중장이 취임
8월22일	칙통을 대문 소개선(쓰시미미루)가 이쿠세키지마(鶴石島) 앞바다에서 미군 침수함에 의해 격침됨
1945년1월31일	제32군, 현지 제2차 병력 소집
	만 17세에서 45세까지의 건장한 오키나와 현민 남자의 대부분을 소집함
2월15일	제32군(친왕부대), 오키나와 군민에게 시달려 포어(1기(機) 1환선, 1경(艇) 1선(船)), 1인 10살(砲) 1환선, 류 군시
3월9일	도쿄 대공습
3월23일	미 기동부대, 오키나와 본토 공격을 개시
3월31일	미군, 슈리, 나히볼 포격
4월7일	전황(이마토) 이하, 오키나와 구원군 해상부대가 도쿠노시마 앞바다에서 괴멸
5월31일	미군, 슈리-점령
6월13일	오키나와 해군 주력부대(사령관 오타 미노루 소장)
	오토루 지구(小祿地区)에서 옥색(조류) 우시지마 사령관, 조(丸)참모장 남부 미루나에서 자결
6월25일	구메지마(久米島)에서 일본군에 의한 주민학살시건
7월25일	미군, 오키나와 작전 종료 선언
7월25일	대일본(日) 포츠담 선언 발표
8월15일	미군,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
8월15일	미군,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8월15일	일본 정부, 포츠담 선언 수락 신청
8월15일	친왕, 중진 조서를 라디오를 통해 방송
9월2일	일본 정부, 미 함대 미즈리 호에서 항복문서에 조인
9월7일	류큐열도 수비군, 가데나키 미 제10군 사령부에서 항복문서에 조인